

2022년 08월 07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71편 6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84(통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5장 1~16절(구약p.765)

1.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2.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3.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4.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5. 그가 추수한 것은 주린 자가 먹되 밋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울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6.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7.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 가는 것 같으니라
8.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9.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10.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11.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12.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13.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14.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15.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16.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 말씀선포 / 위로하는 일의 어려움

고난 속에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먼 곳에서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욥기 2장 11~13절을 보면, “그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바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

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읊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겹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칠 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읊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고 했습니다. 그들은 읊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서로 약속하여 읊을 위로하기 위하여 먼 곳에서부터 찾아옵니다. 그들은 소리 질러 울며 자기의 겹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칠 일 동안 읊과 함께 땅에 앉아 함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읊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자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읊을 괴롭게 하는 책망이요 질책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엘리바스는 재앙의 원인이 읊에게 있다고 말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피조물인 인간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는 없으니 지금 엘리바스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말에는 맥락이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을 당한 읊에게 적절치 않은 권면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이 이처럼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본문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할 때, 어떠한 해야 하는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어 우리도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성립하지 않는 인과관계로 판단하는 어리석을 버려야 합니다.

- 본문 2절입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고 말합니다. 읊의 친구 엘리바스는 지금 고통 속에 분노하는 읊을 향해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을 것이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시기 질투 때문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조언은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읊에게 사실 너무도 가혹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고, 재난을 당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일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 백성이 환호하는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은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사울 왕은 이후, 다윗을 죽이는 일에 삶 전체를 걸고 행하다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실패와 고통의 원인이 우리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선택과 행동의 결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무고한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고통당하고 희생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고한 고난을 당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그 고난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모든 상황을 잘 알지 못하면서 회개를 촉구할 수도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의 결과가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성경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했던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또 다윗이나 엘리야도 모두 악한 자들일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역시 자신의 죄의 결과로 치부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가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어 임한다면, 그것은 죄로 인한 파국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 실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까지 그 악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2.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 엘리바스는 고난당하는 읊에게, 만약 자신이 읊이라면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일을 의탁하겠다고 말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권면은 자신의 존재적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절대적 위로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건넬 수 있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그러나 8절 이후에 이어진 엘리바스의 권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말 속에 읊을 향한 은근한 비난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2~14절입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약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약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엘리바스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셔서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은 결국 옳이 바로 그런 자라는 말입니다. 또 “미련한 자의 자식들”을 운운한 앞선 구절은 모두 자녀를 한꺼번에 잃은 옳에게 더더욱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옳을 위로하기 위해 먼 곳에서 친구들과 약속까지 하고 먼 길을 찾아와 함께 울며 슬퍼했던 엘리바스에게 옳에 대한 악한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선한 의도가 있었다 한들, 사려 깊지 못했던 그의 말은 오히려 날카로운 칼이 되어 옳의 마음을 찌르고 갈기갈기 찢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혹시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성경 구절을 인용해 가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말하며 위로를 전합니다. 물론 분명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신중히 기도하며 위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자의 마음의 진실함을 느낄 때 더욱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상대의 그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며 말하게 될 때 오히려 더 큰 아픔을 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으로 위로하려는 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고난중의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헤아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고난당하는 자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위로하는 자의 그 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먼저 위로를 하는 자들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먼저 깊은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의 마음을 헤아려 가며, 오직 하나님께 고난 속에 있는 지체들을 의탁하여,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입장과 고통을 100퍼센트 이해할 수도, 느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알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며, 의롭고 지혜롭다고 해서 고난 속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잘 위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성도는 고난당한 자들 앞에서 말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마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와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알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지체의 모든 고난을 아뢰며, 은혜와 평강이 참된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와 간구, 도고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함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406(통464)장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 폐 회 / 주기도문